나의 친애하는 악플러

나윤아 장편소설, 탐 펴냄, 304쪽, 15,000원

키워드: #미디어 리터러시 #악플 #열등감 #따돌림 #스토킹 #다문화 #선한 영향력 #인플루언서 #청소년 소설

"내가 꼭 네 편 들어 줄게."
초등학생 시절, 주언이 했던 그 말은 유안의 삶을 바꾸었다.
5년 뒤 180도 역전된 처지로 만난 두 사람.
둘은 여전히 같은 편일 수 있을까?
때로는 힘이 되고, 때로는 칼이 되기도 하는 한마디.
이 작품은 그 무게와 책임, 영향력을 일깨운다.

탐

이해활동

* 다음 대사는 누가 한 말일까요? 이름을 적고 두 주인공의 입장에서 아래 대사를 말하거나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 들었을지 서술해 봅시다.

김 주 언	등장인물의 한마디	최 유 안
그때 나는 좌절된 미래에 대한 고통으로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렇게라도 분노와 슬픔, 스트레스를 방출하지 않았다면 미치지 않았을까? 그렇긴 하지만...	생얼 테러? 아침 먹은 거 토할 뻔. 자신감이 과하시네. 본문 40쪽, _____의 말	
	혹시 너 피부나 외모로 놀리는 애 있으면 내가 꼭 네 편 들어 줄게. 본문 104쪽, _____의 말	
	너도 유튜브 채널이든 인스타든 뭐든 해 봐. 모처럼 '이안 코인' 탑승했는데 잘 활용하면 좋잖아. 본문 167쪽, _____의 말	
	지랄. 어떻게 살긴, 옛날처럼 따뜻하고 예쁘게 빛처럼 살겠지. 그때도 지금도 김주언은 김주언이야. 본문 301쪽, _____의 말	

* 책 속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대사를 소개하고 그 이유를 서술해 봅시다.

목표 활동

* 악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했다고 생각하는 사례(뉴스)를 소개해 봅시다.

예시 유튜버 '구르님'은 자신이 악플 앞에 초연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미워하는 건, 무언가를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것보다 꾸준할 수 없으니까."

출처 : " '유쾌한 장애' 이야기에도 악플 붙지만…미움은 꾸준할 수 없어요", 〈한겨레 신문〉 2023.05.13

첫째

둘째

---

*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까지 악플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어떤 것들이 논의되었는지 조사하고 서술해 봅시다.

첫째

둘째

셋째

창의·융합 활동

* 다음 연구 사례를 요약하고, 이를 근거로 삼아 인터넷상의 댓글 문화가 어떤 특징을 띠는지 의견을 제시해 봅시다.

올바른 판단 기준? … 타인의 행동, 직관 모두 무용지물

다니엘 레이징 독일 드레센공대 사회심리학과 교수팀은 학술지 '인간성과 사회심리학 회보' 2013년 10월호에 사람들이 타인을 평가할 때 자신과의 친밀도에 따라 다른 판단을 내린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같은 행동이나 말을 하더라도, 낯선 사람인지 또는 가까운 사람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다르게 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155쌍의 친구를 모은 뒤, 농담을 던지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역할극을 시켰다. 그 뒤 각자가 경험한 타인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조사해 기록했다. 레이징 교수는 과학 보도자료 전문 사이트 '유레카얼러트'와의 인터뷰에서 "같은 행동에 대해 사람마다 다른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대부분 감정적 편견이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출처: "던지고 보는 댓글 시대, 우리는 어떻게 남을 비난할지 결정할까", 〈동아사이언스〉 2017.10.18.

핵심 사실 심리학 교수 다니엘 레이징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남에 대해 판단하기 전에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자신과 얼마나 친밀한지를 먼저 따져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나의 의견

* 실제 댓글을 예시로 삼아 그 특징을 살펴봅시다.

주제 댓글 :		
정직성	댓글 작성자는 원문(또는 원래의 콘텐츠) 전체를 확인한 상태인가?	☆☆☆☆☆
합리성	선입견이나 편견에 빠져 잘못된 논리를 펼치고 있지 않은가?	☆☆☆☆☆
폭력성	욕설과 비속어, 혐오 표현을 거침없이 쓰고 있지 않은가?	☆☆☆☆☆
공격성	감정을 앞세워 대상을 몰아세우고 있지는 않은가?	☆☆☆☆☆
맹목성	남의 자극적인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퍼나르고 있지 않은가?	☆☆☆☆☆